

## 낮설게 하기 작가의 자기보존을 위한 자기삭제와 자기생성

### 그룹의 형성

지난 2020년 7월, KCDF 갤러리에서 2019 청주국제공예공모전에서 수상한 11명의 작가 중 6명(고보경, 김준수, 박성열, 박지은, 이재익, 천우선)이 뜻을 모아 그들의 첫 번째 전시 <0[공기]>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위의 작가들이 2019년 공모전 시상식 이후, 며칠동안 공예현장 전국투어 일정에서 작업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공통의 관심있는 주제로 전시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시작되었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0[공기]>는 여섯 작가가 기器的 형식에 대한 각자의 화두를 바탕으로 성실히 연구하여 접근하였던 전시로 평가된다.

### 낮설고 낮익고

또 다른 일 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 뒤, 2021년 12월 스페이스 B-E에서 그룹의 두 번째 주제전 <낮설고 낮익고>가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김준용 유리작가가 함께하여 모두 일곱 작가가 출품하였다. 전시는 조도 대비가 강렬한 직사각형 공간 속에 마치 연극무대처럼 연출되었고, 작품들은 등장인물로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다. 전시장 중앙을 가로지르는 바닥과 유사한 높이의 회색 좌대 위에는 이재익, 김준수, 박성열 작가의 작품이 놓였고, 그 옆의 끝에는 테이블 높이의 좌대 위에 고보경 작가의 작품이 배치되었다. 박지은 작가의 작품과 천우선·김준용 작가의 작품은 직사각형 공간의 긴축을 대칭으로 마주한 두 개의 화이트 큐브 안에 나눠 설치되었다. <0[공기]>에서 작품들이 좌대 위에 눈높이를 달리하여 시각적 리듬감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본 전시는 전체공간이 활용되었다.

### 공간활용에 대한 고민들은 <0[공기]>

전시 이후 작가들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낮설고 낮익고>의 출발점이 되었다. 작품이 놓이는 공간에 따라 작품 형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조형공식을 작가들 스스로가 작업의 능동적인 변수로 삼고, 기존 작업에 변화를 주는 적극적인 추동력으로 작동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그룹을 이끌어가는 이재익 작가가 쓴 전시 취지문 중에서, “끊임없이 작업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작가에게 부여하는 독자성에는 쉽게 얻을 수 없는 특별함이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항구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오히려 스스로를 제한하는 틀에 갇혀, 새로운 창조적 활동에 목마름을 느낀다. 타성에 젖어 익숙함을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발자국의 미미한 변화로 보일지라도 그 작은 진화를 위해 인간힘을 써볼 것인가.”라는 독백이자 다짐과 같은 글로 확인된다. 이번 전시의 특이점은 작가 측에서 스페이스 B-E의 디렉터인 최주연 대표에게 먼저 전시를 제안한 점이다. 외부적 요인을 극대화하여 적극적인 작품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작가들에게는 스페이스 B-E의 독특한 공간과 이들의 작품을 대하는 기획자의 참신한 시각이 필요하였고, 이를 최주연 대표도 받아들여 갤러리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전시가 이뤄지게 되었다. 따라서 여느 전시기획과는 달리, 이미 참여작가와 전시방향이 정해진 상황임을 인지한 최주연 대표는 적극적인 기획보다는 공간 배치와 작품 설치, 이와 연동된 작가들의 작업 상황과 큰 방향을 가이드하며 전시의 걸을 다듬는 역할로 든든히 지원하였다. “이 전시는 스페이스 B-E의 과정에 대한 집착과 특유의 공간적인 해석을 접하고



박지은 작가의 설치 전경



이재익, 김준수, 박성열, 고보경 작가의 설치 전경

### 낮설고 낮익고

2021.12.22.~2022.1.26. 스페이스 B-E 4층

서울 강남구 학동로26길 14 윤현상재빌딩  
 T.02.540.0145 H.www.younhyun.com

작가 고보경, 김준수, 김준용, 박성열, 박지은,

이재익, 천우선

기획 이재익, 최주연

작가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겪은 저마다의 변화를 풀어내는 실험이다.”라고 이재익 작가의 글에서 그들 스스로의 전시를 정의하였다. 일련의 준비과정과 작가들의 예술에서 감지되는 것은 작가들에게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이번 전시를 통해 그것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이 그룹에 참여한 작가들은 모두 10여년 이상을 흔들림 없이 작업에 전념하며 지명도 있는 작가들이다. 이들은 본인의 확고한 조형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변화를 맞이할 내공도 쌓여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전시와 작업의 팽팽한 일정 사이에서 새로운 경향의 작품을 매번 출품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은 공간활용이라는 전시 컨셉 변화와 외부기획자와의 협업이라는 내외부적 요인을 모두 동원하여 작가 스스로를 낯설게 위치시키는 전략이었다. 새로운 조건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시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작가적 운명

작가라는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시대를 읽거나 앞서는 민감하고 예민한 조형작업을 연속해야 하는 작업을 갖는다는 건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언제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번 생을 한 명의 작가로 살아간다는 결심은 편하거나 쉬운 선택지가 결코 아니다. 이 결심은 사회적 성공 또는 보상과는 무관하게, 훨씬 앞서서 삶의 형식과 태도를 스스로 정하는 일이다.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 작업 시간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작가만의 유일한 작업 철학과 형식을 구축하여야 하고, 재료·기법에 대한 학습과 탐구 그리고 고유한 기량도 점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작가가 살고 있는 동시대성과도 교감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작품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작가는 문화예술계 안에서의 크고 작은 역할을 부여받고 뒤따르는 평가적 시선도 견뎌야 한다. 작업이 지속됨에 따라 시기별로 작가의 경험과 사고가 넓어지며

배어나는 조형적 변화도 모색하여야 하고, 물질 지능으로 다듬어진 작업철학도 다양한 차원의 세계관으로 변주되어 시대와 호응하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작업의 과정마다 반복되는 일도 있다. 작품의 새로운 형식적 변형과 철학적 사고를 심화시킬 때마다 수반되는 창작의 진통이다. 특히 독창적인 조형언어를 찾고자 무수한 실험을 하거나, 기존의 연작에서 진화적 탈피가 필요할 때 누구든 비켜갈 수 없는 지난한 시간들이 찾아온다. 작가의 깊어진 사유가 담긴 새로운 형상을 위해 점, 선, 면, 색의 조형적 요소를 취할 때마다 결단이 필요한 작가에게 홀로 온전히 마주하는 낯설고 불안하며 두려운uncanny 순간들이다. 불가피하게도 이런 생경하고 불편한 순간들을 인내하고 스스로 즐기는 과정 속에 새로운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이것은 작품활동이라는 긴 여정에서 완성을 향한 작업적 결핍으로 치부하고 채워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작가라는 정체성의

자기보존을 위해 자기삭제를 긍정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작가적 운명으로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기존 작업에서 느끼는 결핍과 새로운 작업을 향한 욕망이 작가라는 주체를 구성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작업의 과정에서 변신에 대한 속도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문제는 작가로서 자기보존을 위한 자기삭제와 자기생성에 대한 지속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긴 호흡으로 그럴 수 있다면, 이 또한 선택과 집중의 수행을 통해 작가적 역량으로 진화될 것이고 어느 시점에는 유일성을 간직한 작품으로 발화될 것이다.

### N번째 전시

몇 년 전부터 공예계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적지 않은 인원이 시장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작업의 실험과 모색보다는 근시안적인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단기간 연명하는 작업을 하다가 지쳐 사라져버리는 추세에 대해 안타까움이 앞서는 요즘이다. <낯설고

낯익고> 전시가 고무적이었던 까닭은 작가적 운명을 긴 호흡으로 감내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일이 보였기 때문이다. 30대 초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작가군으로 구성된 이들의 활동이 여러 기획자들과 협업하며 지속적으로 전시를 개최하고 다양한 화두와 섬세한 담론을 제시한다면, 이는 한국 현대공예를 보다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거나 또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작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그룹전이 촉발되어, 기획자 풀이 두텁지 않은 공예전시의 장안에서 미시적인 담론들을 담을 수 있는 풀뿌리 문화로 리즘rhizome과 같이 널리 퍼지는 담지체로 작용될 수 있다면 더욱 유의미한 활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우선 이 그룹의 일 년 후 또는 그 이후의 전시를 앞서 응원하고자 한다. 📷

글. 전주희 공예문화전시연구,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 책임큐레이터  
사진. 손미현 작가



고보경 작가의 설치 전경



천우선, 김준웅 작가의 설치 전경